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www.jejubokji.net



# 사랑나눔 푸드마켓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 2주년 운영보고서

(2009. 6 ~ 2011. 5)





##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마켓)이란?

'푸드뱅크'는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결식아동·독거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식품을 전달하는 "식품 나눔 사업"입니다.

특히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을 직접 이용대상자에게 방문전달하는 푸드뱅크와 달리 기부식품 이용자의 식품선택권 및 자존감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하여 식품·생활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사업입니다.

###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현황

- ▶ 개 장 일 : 2009. 6. 17(수)
- ▶ 소 재 지 : 제주시 일도2동 361-22
-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 운영시간 : 월~금, 09:00~15:00
-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물품지원 : 무료이용, 1세대 월 1회 이용, 3품목 이하
- ▶ 이용방법 :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회원, 카드발급 후 바로 이용

## 진정한 나눔이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



지난달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이야기가 TV를 통해 소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양이 확대되고 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해서도 안 되겠지만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길은 오직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는 나눔의 실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운영을 통해 여러 후원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을 모아 작지만 소중한 나눔을 실천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연 지난 2년 동안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체감하신 분들이 약 3만 5천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12개소 푸드마켓 가운데 가장 높은 이용률로서 그만큼 푸드마켓을 통한 식품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푸드마켓을 운영함에 있어서 늘 푸드마켓을 이용자분들께 만족할 만큼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는 자신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간이 흐를 수록 커지고 뜨거워져만가는 도민 여러분의 사랑을 믿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림은 물론 도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나눔 실천기관으로 도내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감싸 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고자 개점 이후 2년간의 푸드마켓 운영현황과 통계자료 등을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나눔문화의 발자취를 기록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보내주신 여러 후원자님들을 포함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들은 여러 후원자님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동 환

# 사랑나눔 푸드마켓

##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2009년 6월 17일, 제주도민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 수놓음 미덕 살리는 '푸드마켓' 17일 개장

제주도의 나눔의 미덕인 '수놓음'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오는 17일 문을 여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식품 기부 분과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현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번 개장하는 푸드마켓은 출몰하는 노인·저소득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저소득층이 직접 헌당에 헌한 5개의 식품(3인분 상당)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푸드마켓에는 기업체·개인·단체 등이 기부한 쌀·야채·생선·건어물 등 농수산물과 라면·조미료·음료 등 가공식품, 화장지·바나·삼부 등 생활용품이 갖춰진다.

푸드마켓은 제주 월급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푸드마켓에 기부할 희망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711 제주 758-1377)로 문의하면 된다.

고미 기자 boonee@jein.com



푸드마켓 운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도내 여러 기관, 단체, 사업자, 개인 등 많은 분들에게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정말 누그러 할 것 없이 모든 제주도민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푸드마켓 기부물품 부족 '운영난'

내달 1일부터 이용 대상·운영시간 조정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푸드마켓'이 개장 1달이 지난 17일 현재까지 운영난을 겪고 있다.

푸드마켓에서는 기부한 물품을 100%가량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쌀은 기부량이 부족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푸드마켓은 제주 월급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푸드마켓에 기부할 희망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711 제주 758-1377)로 문의하면 된다.

### "어디 후원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도사회복지팀, 기부품 확보 어려워 푸드마켓 이용 축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마켓 운영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했다. 특히 쌀과 야채의 부족이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푸드마켓은 제주 월급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푸드마켓에 기부할 희망하는 기업, 개인, 단체 등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711 제주 758-1377)로 문의하면 된다.



푸드마켓에서 '기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몸으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 부녀회까지, 물론 후원금 할 것 없이 작은 정성, 큰 관심들이 모이고 모여 푸드마켓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 사랑나눔 푸드마켓

##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자 최대

#### 제주, 매월 1339명... 타지역보다 3배 많아

제주지역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이용자가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는 17일 푸드마켓 개장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용자는 1만67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이용자는 1339명으로 타지역의 472명보다 3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자가 타지역에 비해 많은 이유는 도내 운영중인 푸드마켓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접근성이 어려운 서귀포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차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년



도사회복지협·비원심계항 푸드마켓 지원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도환)와 비원심계항(대표 김충현)은 지난 8일 사회복지협의회 2층 상담실에서 '사랑나눔푸드마켓' 운영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원심계항 김충현 대표는 현금 1000만원을 사랑나눔푸드마켓에 전달했다.

### 제주농협-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도환)는 지난 17일 농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푸드마켓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제주농협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마켓'과 '푸드마켓'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사업을 앞장서며 제주농협과 사회복지협의회는 상호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과 후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푸드마켓사업은 식품제조, 유통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2000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사업을 수행해 온 이웃들에게 식품이나 생활양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제주농협-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전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 타지역에 비해 3배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소외계층 지원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olleh kt '사랑나눔 푸드마켓' 성·금·기·탁

### 푸드마켓 소외계층 지원에 '한 몫'

지난해 1만5625명 이용 매월 증가 추세 기부 물품도 늘어 매장 운영도 '안정권'



개장 이후 운영난을 겪었던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저층 지대를 임대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비영리적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도환)는 지난 2009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 1만명 월 5개의 물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푸드마켓을 개장했으나 운영 3개월만에 물품 부족 등으로 폐쇄하게 되었다.

폐쇄된 2009년 1월부터 매장 운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및 불거피하게 체한 고령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물품도 월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그런데 최근 푸드마켓에 물품을 기부하는 운영의 손길이 늘어나면서

매장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물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상세로 지난해 1월 푸드마켓에 접수된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830만원의 물품이 접수됐으며 1000만원 이상을 접수했고 있고, 4월에는 2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월 기준 최고금액인 4553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 매장 운영에 승용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푸드마켓에 2억4271만원 상당의 물품이 접수되고, 이후 1억7370만원 상당의 물품이 이어져 이웃에게 전달됐다.

이처럼 푸드마켓에 접수되는 물품이 늘어나면서 이용연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푸드마켓 운영초기인 2009년 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이용자 기부 물품이 늘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비영리적으로 자립을 할아가고 있다.

이용연은 11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월 푸드마켓 이용 연은은 1만5625명으로 집계, 소외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올해도 많은 이웃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산남에 푸드마켓 있어야

#### 서귀포지역 노인들 제주시 방문...주민센터 등 활용 필요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등의 비영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제주시에만 마린, 서귀포 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등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기 위해 제주시를 방문하는 등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산남지역에도 최근 이전한 예전 동흥동주민센터나 서흥동주민센터 건물에 푸드마켓 공간을 마련, 서귀포 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상대적 소외감을 없애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도환)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서귀포지역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만7572명으로,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금을 받는 노인은 1만884명이다.

도 푸드마켓 등 복지원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20명으로 제주시에 살고 있는 등복지원은 1757명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산남 지역에 푸드마켓을 설치해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제주특별자치도 인내정보산업 협동조합 '기부물품전달'

끊임없이 푸드마켓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버팀목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넓고 더욱 깊게 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도2동 부녀회 푸드마켓에 이웃돕기 떡 전달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세리아)는 최근 사랑나눔푸드마켓을 방문,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려며 가래떡 200kg을 전달했다.



이웃 사랑 물품 전달



강은숙씨 비타민공무원 시상금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은숙 주무관이 3일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해 '2011 비타민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20만원을 기탁했다. 강 주무관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생봉사위원으로 월3회 이상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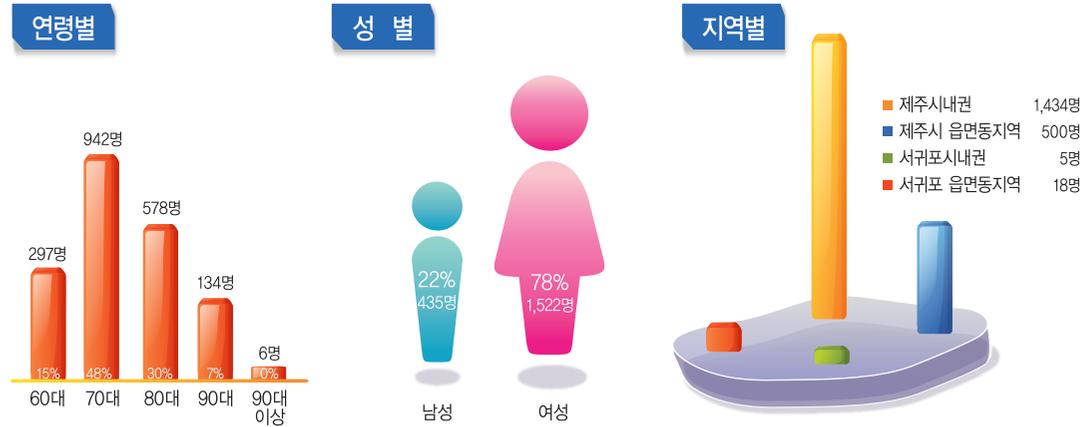


도사회복지협·이어도자활센터 푸드마켓 지원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도환)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는 지난 1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의실에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 식품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등록회원현황

2011년 5월 말 현재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등록된 회원은 총 1,957명이며, 이중 70~80대 어르신 비율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푸드마켓이 설치되지 않은 서귀포 지역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푸드마켓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2011년 7월 서귀포 푸드마켓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서귀포 지역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회원 추이



(단위: 명)

월	계	2009년	2010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이용회원	33,576	10,654	15,624	1,417	1,414	1,487	1,481	1,499

이용회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월 1,500여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개장 이후 2년 동안 약 35,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이용률



2003년부터 푸드마켓을 운영한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 푸드마켓들의 평균 이용회원을 살펴보면, 제주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이용회원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푸드마켓 사업이 제주지역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부물품 접수 및 지원총괄

2011. 5월 말 현재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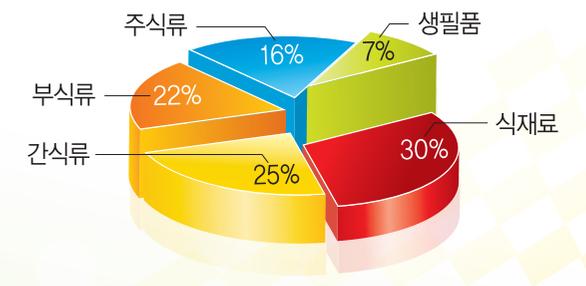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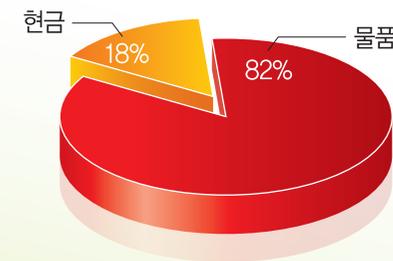
구분	접수			지원	푸드뱅크 지원	재고(잔액)	
	계	물품	현금			물품	현금
계	625,133	513,715	111,418	481,797	56,918	21,361	65,057
2009년도	270,236	237,336	32,900	156,166	26,727	62,443	24,900
2010년도	262,458	202,665	59,793	226,963	26,274	△19,811	29,032
2011년도	92,439	73,714	18,725	98,668	3,917	△21,271	11,125

지난 2년간 후원받은 현금 및 물품은 총 6억2천5백만원 상당이며, 그 중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통해 5억4천1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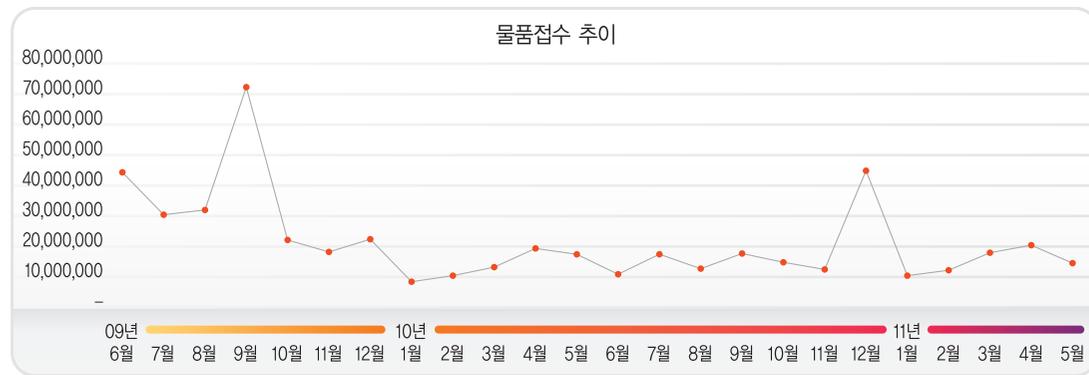
기부품목비율

기부물품과 후원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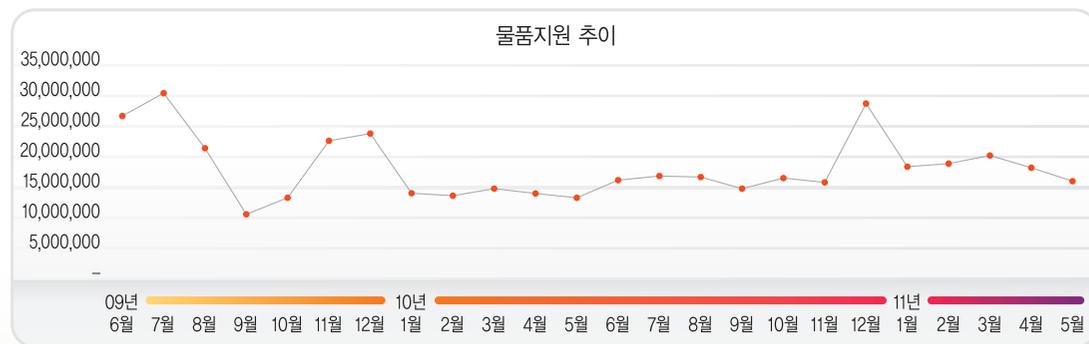
기부물품 품종별 비율



기부물품접수추이



기부물품지원추이



사랑나눔 푸드마켓 실적총괄(2009. 6~2011. 5)

연이용인원	월평균 이용인원	1일 평균이용인원	1월 평균지원규모	1인 평균이용규모
33,576명	1,399명	63명	20,074천원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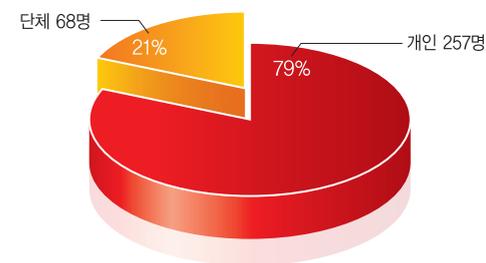
자원봉사활동현황

월별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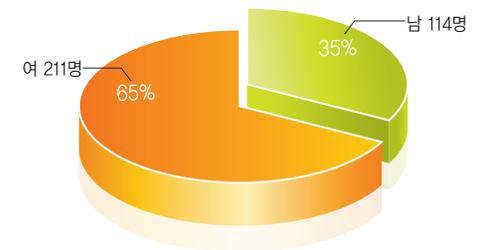


2010년 1월 이후 총 387명, 월 평균 22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방학기간인 8월과 1월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소속비율



성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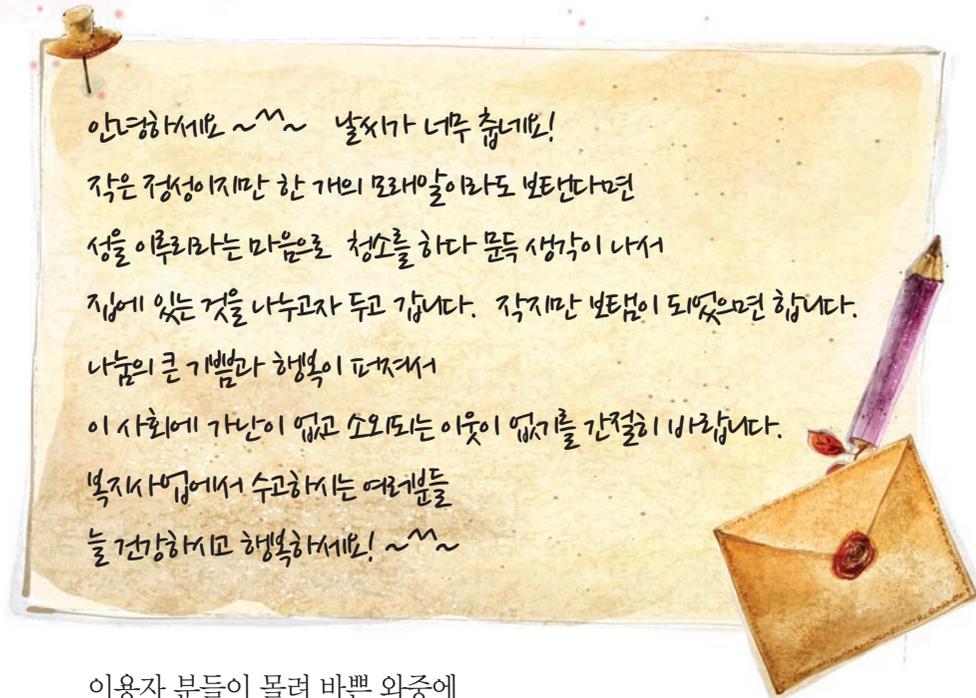




# '나눔열매'를 함께 키워가는 '나눔이웃'들

연번	기 부 처	연번	기 부 처
1	국수마당	24	손뜻모아봉사회
2	국제컨테이너	25	상상부식
3	금강축산유통	26	약천사신도일동
4	금호타이어 제주영업소	27	영락교회
5	금호타이어 제주판매서비스	28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6	기분좋은 정육마트	29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7	김만덕기념사업회	30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8	김치원	31	자연드림
9	남녕고 2회 졸업생일동	32	작은세상봉사회
10	농협중앙회 제주도청지점	33	정우식품
11	뉴월드마트	34	제주 나누리 라이온스클럽
1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5	제주MBC
13	동광성당 빈첸시오	36	제주농협지역본부
14	동부건재	37	제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15	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38	제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15기 동창회
16	명도암관광휴양목장	39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17	불다클럽 한라회	40	제주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18	비원	41	(사)제주마쌈
19	산방미곡	42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20	산정대 사회복지과동아리 한꿈레오	43	제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직원
21	서귀포농업협동조합	44	제주신협
22	서문식품	45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3	세계평화의섬교회	46	제주은행 봉사단
47	제주은행 시청점	62	한국감정원 제주지점
48	제주이여도지역자활센터	63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49	제주종합식품	64	한국무역보험공사
50	제주특별자치도슈퍼마켓협동조합	65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연합회
5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6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52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67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5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68	한라라이온스클럽
54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생봉사회	69	한라일보 독자위원회
55	국제라이온스클럽 354-G지구	70	한아름정육마트
56	중앙유통	71	해담은어린이집
57	(주)청룡수산	72	햇살상사
58	탐라상사	73	E도시가스
59	푸른영농조합법인	74	KT 제주마케팅단
60	푸른축산물판매장	75	KT&G 제주본부
61	풍인건설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연번	성명
1	강경록	36	고병기	71	김미향	106	김창섭	143	양돈행	178	이상주	214	조애록
2	강경림	37	고성봉	72	김보경	107	김춘옥	144	양명희	179	이선희	215	조정희
3	강길호	38	고성운	73	김복철	108	김 현	145	양복실	180	이순실	216	조현경
4	강맹자	39	고승희	74	김봉룡	109	김현아	146	양석훈	181	이시찬	217	지경찬
5	강명숙	40	고영태	75	김봉철	110	김효심	147	양순희	182	이영진	218	천갑순
6	강문정	41	고용범	76	김부자	111	김효주	148	양애자	184	이은숙	219	최막동
7	강미경	42	고용석	77	김분희	112	김희숙	149	양윤정	185	이정숙	220	최호만
8	강수남	43	고유신	78	김상현	113	나명숙	150	양은희	186	이정화	221	한경미
9	강순실	44	고은영	79	김선자	114	문경림	151	양제윤	187	이창도	222	한 권
10	강승남	45	고이석	80	김선희	115	문기훈	152	양진희	188	이태엽	223	한미숙
11	강승향	46	고익준	81	김성건	116	문영섭	153	양창인	189	이현정	224	한영희
12	강영복	47	고정희	82	김성대	117	문익순	154	오경숙	190	임경아	225	한옥녀
13	강옥자	48	고춘매	83	김성부	118	문재원	155	오만순	191	임경희	226	한윤향
14	강원식	49	고치환	84	김소연	119	박강란	156	오승란	192	임문범	227	함복희
15	강유심	50	고태원	85	김수정	120	박성홍	157	오승의	193	임부훈	228	허 진
16	강윤자	51	고현수	86	김양자	123	박은석	158	오승진	194	임애춘	229	허경미
17	강은숙	52	고혜아	87	김연경	124	박정우	159	오애순	195	임양자	230	허미화
18	강재석	53	고호준	88	김영미	125	박정희	160	오양선	196	임이랑	231	허연정
19	강재영	54	김경필	89	김영성	126	박종일	161	오은숙	197	장규환	232	허은영
20	강재욱	55	김금순	90	김옥순	127	박주희	162	오창석	198	장승남	233	현미화
21	강재희	56	김남근	91	김용현	128	박천광	163	원석철	199	장승련	234	현민철
22	강창인	57	김남길	92	김우남	129	변지철	164	원성훈	200	장승운	235	현성부
23	강태훈	58	김대영	93	김원삼	130	부미선	165	유봉순	201	장윤정	236	현성요
24	강현영	59	김덕훈	94	김은양	131	부정옥	166	윤경숙	202	장은숙	237	현영심
25	강효정	60	김동수	95	김은진	132	손효익	167	윤순덕	203	장화자	238	현예수
26	강희은	61	김동은	96	김인숙	133	송순열	168	윤영아	204	전금숙	239	홍경선
27	강희철	62	김동철	97	김재홍	134	송연심	169	윤정숙	205	정금옥	240	홍나나
28	고경수	63	김동환	98	김정덕	135	송영신	170	윤주형	206	정명호	241	홍명숙
29	고경완	64	김두만	99	김정수	136	송임권	171	윤지형	207	정미숙	242	홍성희
30	고경윤	65	김명수	100	김정심	137	송재근	172	이경림	208	정재욱	243	홍원우
31	고두성	66	김명옥	101	김정호	138	송창선	173	이경언	209	정지현	244	홍원철
32	고명희	67	김문옥	102	김종완	139	송호철	174	이경훈	210	정현숙		
33	고 미	68	김미경	103	김지경	140	송화선	175	이동한	211	정혜진		
34	고미연	69	김미자	104	김지훈	141	신동호	176	이명구	212	조길화		
35	고미현	70	김미정	105	김진훈	142	안성희	177	이미향	213	조명숙		



안녕하세요 ~^^~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작은 정성이지만 한 개의 모래알이라도 보낸다면  
 성을 이루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집에 있는 것을 나누고자 두고 갑니다. 작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눔의 큰 기쁨과 행복이 따져서  
 이 사회에 가난이 없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지사업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이용자 분들이 몰려 바쁜 와중에  
 살짝 들어오셔서 종이가방을 두고 가신 익명의 기부자가 계셨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을 때 이미 기부자 분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가방을 확인해 보니 식용유 8병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저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희망 메시지

- ▶ **전주대 홍은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푸드마켓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가장 의미있는 시간 이 되었습니다.
- ▶ **전주대 김성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제 절음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 ▶ **아라중 과은을** 푸드마켓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들 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게가 되었습니다.
- ▶ **전주대 김지연** 푸드마켓에 기탁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새 힘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 ▶ **전주대 고희희** 생각보다 행운이 많!!!입니다. ^^
- ▶ **기탁자 김수영 (식음식품)** 나눔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나누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 게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기탁자 강연희 (김치부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만큼의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 다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본다면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보세요.
- ▶ **기탁단체 강은숙회장 (원샘봉사회)** '누군가를 위한다는 거창한 생각 보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은 정성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느끼는 무 한한 행복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게 합니다.
- ▶ **개인기탁자 양금순** 기부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여겼었는데 푸드마켓을 통해 기부를 하다 보 니 기부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 **이행자 양희** 한 사람이 가져가는 물품이 바 될 것 아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물품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더운 날, 추운 날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이행자 강행일** 매일 TV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나오는데도 푸드마켓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서민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푸드마켓이 두 돌을 맞았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벌써 두 돌을 맞았습니다.

물품부족으로 인해 운영위기라는 말이 돌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흘러서 엊그제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때 푸드마켓을 찾아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너무도 생생하기에 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운영난에 허덕이던 그 때 푸드마켓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도내 크고 작은 기업들의 생산품 기부와 후원금 기부, 많은 분들께서 가가호호 모아두었던 세탁세제, 주방세제, 비누 등을 들고 나와 푸드마켓을 찾아 주셨고, 각종 동창회, 부녀회에서 푸드마켓을 찾아 후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웠던 2년 전 그 때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나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떠올려주시고, 아껴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 후원안내

함께 나누고 싶은 식품·생필품이 있으시면  
후원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의. 064-758-1377)

##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01-0024-0336-61 / 제주은행 11-01-035561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발행일 : 2011년 6월 17일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jejubokji.net/>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전화 : (064)702-3783~4, 726-5786  
팩스 : (064)702-3383 디자인 : 디자인시티

